

03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발전 방향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발전 방향

2013. 6. 17

박양호

목차

1. 메가트렌드
2. 역동적 잠재력
3. 비전과 전략
4. 전략별 과제
5. 결론

1. 충남에 다가오는 7가지의 메가트렌드

① 세계경제사이클과 전면적 자유화

- 2020년 세계경제피크를 향한 상승적 흐름
- 단기적 침체속의 장기적 상승궤도
- 세계경제의 원동력: INBEC(IT-NT-BT-ET-CT)
- 전세계적 FTA확산으로 자유통상시대

1

② 중국의 비약과 환황해경제권시대의 본격화

- 세계경제의 G2로서의 중국:
세계경제의 황금주기를 적시활용
- 중국의 경제흡인력, 외국투자의 흡인
- 경제특구벨트와 내륙의 균형발전도모
- 중국의 신형도시화 전략추진
- 환황해경제권의 본격적 전개/ 지역간 경쟁심화

2

③ 수도권 인구유입의 역전

- 충청권이 수도권 인구유입의 중심지
- 젊은 인구계층의 지방화가 속제
-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정착효과
- 인구의 지방화 지속 가능

3

④ 세종시 영향의 지역간 차등적 효과

- 세종시의 영향 점진적 증대
- 국가행정중심지/국가정책 싱크탱크 중심지
- 새로운 균형발전중심지
- 세종시의 네트워크 경제 파급:
충청권이 일차적 중심지

4

⑤ 창조경제시대의 전개

- 선도형 창조경제의 중요성
-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
- 과학기술과 IT의 전산업적 접목
-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의 융합지역의 선도적 경쟁력

5

⑥ 국민체감형 행복이 중시되는 사회적 변화

- 국가발전과 개인 행복의 조화
- 지역발전의 주민체감적 성과가 성패요소
- 개인행복의 기본조건충족이 지역발전의 핵심요소
- 일자리+건강+안전+문화+복지의 융합된 삶 지향

6

⑦충남도청이전의 공간적 변혁

-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 해양과 내륙의 지렛대 도시의 출범
- 해양경제 잠재력의 활용배가
- 공간의 변혁이 개방과 개혁의식의 유발

7

2. 충남의 역동적 잠재력

- 인구 200만명의 집적과 증가추세
- 세계경제의 용광로, 중국과 근접한 서해안의 중앙지
- 수도권과 세종시의 잠재력 활용
- 역사문화자원, 자연풍광, 생태자원의 풍요
- 도시와 농어촌 입지의 적절한 조화
- 창조경제자원의 경쟁력 보유
- 공간적 변혁의 가시화와 다각적 효과

8

3. 충남의 비전과 전략

- 충남의 발전코드: '4新'(Four News)
- 충남의 4대 전략
 - 新성장 (New Growth)
 - 新글로벌(New Global)
 - 新문광(New Culture-Tourism) 文光
 - 新삶의 질(New Quality of Life)
- 충남의 비전: 세계를 향한 창조경제와
행복생활의 新중심지

9

新 ?

- 충남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 새로운 메가트렌드에 충남의 전략적 대응
- 충남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발전의 수혜
- Grand Together: 충남전체 발전+충남도민
의 행복+충남인근지역과 공동발전+대한민
국의 발전 선도+동북아번영의 전진기지

10

4. 전략별 과제

新성장

- **충남전역의 '창조경제밸리' 구축**
 - 주요 핵심산업지대와 신산업지구를 창조경제의 중심지
 - 특히 INBEC <IT-NT-BT-ET-CT>경제루트를 집중육성
 - 과학기술과 IT융합의 원천기술개발 및 상업화
 - 대전R&D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역량 활용

11

- 대학과 기업의 산학링크로 지역중소기업 육성, 청년일자리 유발 및 고급인력의 지역정착
- 아산신도시, 공주 KTX 역세권의 창조경제지구화
- 농어업의 6차 산업화로 고부가가치화
 - * 애그로 파크(Agro Park)의 시범구축: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통합기지
- **중추도시권 개발로 성장 효과 확산**

12

● 내포신도시의 다기능 첨단도시기반구축

- 첨단행정
- 첨단기술산업
- 내포 행복생활권의 중심지
- 연안-내륙발전의 교두보
- 사통팔달의 도시내외 교통망
- 충남의 균형발전선도
- 내포문화와 백제문화의 조화
- 그린시티

→ 내포
신도시

13

● 동서 간선교통망의 확충과 복합환승 시스템개발

● 충남과 연접권역과의 공동발전체제 구축

- 충남과 전북의 새만금지역
- 충남과 대전 및 세종시와 충북 오송지역
- 충남과 수도권(경제자유구역)
- 아산만과 경기만 등 공동발전 협의체 운영

14

新글로벌

- 환황해경제권의 글로벌 물류기지 구축:
평택항-당진항을 연계메가포트로 개발
- 한 중 생산 물류 협력단지 개발 및 네트워크화
 - 충남과 중국연안 주요도시에 시범단지 조성
 - 중국기업의 한국진출,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의 전진기지화
-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와 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
 - 세제, 규제 등 관련 획기적 개방인센티브의 제도개혁
- ‘충남 글로벌 창조경제엑스포’ 기획 추진

15

新문광 [文光]

- 백제문화벨트의 개발: 백제문화의 복원, 보전, 재현
 - 부여와 공주를 백제문화고도로 발전, 백제문화단지 개발
 - 중국과 일본 등 국제관광객 유치에 위한 문화관광상품개발
- 내포문화권, 기호유교문화권을 개발
- 태안반도-충남 다도해-어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제해양관광벨트 구축
 -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해양관광 상품개발/ 특히 중국 맞춤형
- 산-강-바다를 연계, 독특한 ‘힐링 회랑’ 개발
 - 충남의 갯벌자원 등 B & B (Bio & Beauty) 산업육성과 연계

16

新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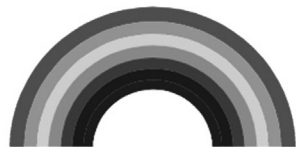
- **충남형 ‘행복생활권’ 프로그램 추진**
 - 주민 실생활권역을 ‘행복생활권’으로 규정하고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기본수요 충족
 - 특히 행복생활권별 7가지의 기본수요기반 마련: ‘지역사회의 무지개’ 프로그램
 - 주민참여-지자체주도-중앙정부 지원의 협업적 추진
 - 시범 생활권부터 단계적 추진
- **도시재생정책과 연계 추진**
 -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으로 근린생활형 도시재생 정책 등 가시화

17

● 행복생활권을 향한 지역사회의 무지개

의[醫] · 직[職] · 주[住] · 육[育] · 교[敎] · 문[文] · 안[安]

- | | |
|----|------------------------------|
| 醫의 | ➤ 도시재생지구 내외의 의료·건강 지원서비스 충족 |
| 職직 | ➤ 마을기업 등 주민 맞춤형 일자리 (시간제 활용) |
| 住주 | ➤ 주민의 주거안정 |
| 育육 | ➤ 자녀교육 및 보육환경의 충족 |
| 交교 | ➤ 대중교통 서비스 접근성 강화 |
| 文문 | ➤ 생활스포츠 시설 등 문화레포츠 여건 충족 |
| 安안 | ➤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기반 충족 |



18

국민행복형 지역사회의 무지개

로터리



박 양 호

국토연구원장

무지개는 희망을 상징한다. 무지개는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가지 색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돼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실생활 공간인 지역 사회에도 희망의 무지개가 떠야 한다.

생활공간상의 무지개는 빨·주·노·초·파·남·보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직·주·육·교·문·안이라는 일곱 가지 삶의 기초조건으로 이뤄진다. 이는 '희망의 새시대'를 향한 지역 사회가 패키지로 갖춰야 할 일곱 가지 조건으로서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국민행복형 지역 사회 발전의 핵심요소가 된다.

먼저 '의(醫)'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지역 사회 주민이 건강한 삶을 위해 신속하고도 편리하게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사회에 공공보건소를 비롯해 민간의 의료시설에 필요 인력과 장비가 있고 응급 앰بول스체제가 잘 운영돼야 한다.

'직(職)'은 직장을 의미한다. 다양한 마을기업과 마을 협동조합 등이 구성돼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면 일자리를 원하는 주민이 여러 형태로 일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안정된 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住)'는 주택을 말한다. 지역 사회 주민 누구나 주거가 안정돼야 한다. 저렴하고도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일부 저소득층은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임대료 보조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육(育)'은 교육과 보육을 의미한다. 지역 사회 가까이 초·중·고등의 자녀교육환경이 구비돼야 하고 어린 자녀의 국공립 보육환경도 잘 갖춰져야 한다. 나아가 구직자를 위한 취업재교육 서비스도 필요하다.

'교(交)'는 교통이다. 지역 사회 안팎에 원활한 대중교통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언덕과 번두리 지역에도 버스서비스가 이뤄지고 특히 대도시에서는 전철망을 지역 사회로 순차적으로 연장해 그 혜택을 받는 주민이 늘어나야 한다.

'문(文)'은 문화를 의미한다. 주민이 편리하게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등을 구비한 스포츠센터가 필요하며 복합문화기능을 갖춘 공공도서관을 적절히 구비해 교류와 지적 문화센터로서의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안(安)'은 안전이다. 지역 사회 주민이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방범과 방재를 위해 취약지구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시스템을 우선 구비해야 한다.

지역 사회 생활권마다 이러한 일곱 가지 삶의 환경을 패키지로 구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 사회 주민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협동하며 지자체는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현해야 한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위한 레인보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 간 고도의 협업적 지원시스템은 필수다.

생활공간 무지개를 만드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때 국민행복형 지역 사회발전의 혜택을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 충남은 세계를 향한 새로운 문명을 잉태하고 전파하는 '창조국토'의 선도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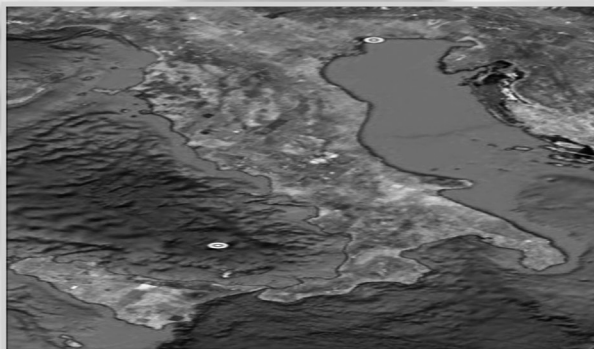


김교신 선생의 [조선지리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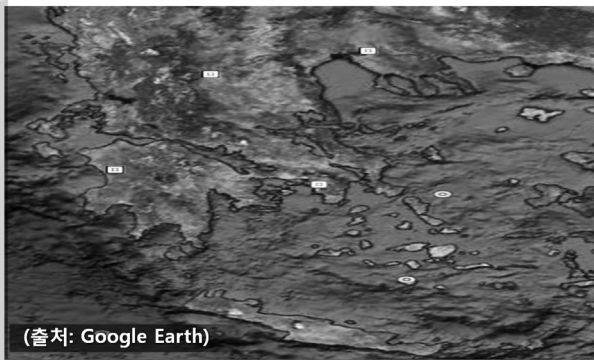
**“3면의 해안선으로 보아도 강토에
불만함이 없을 뿐 아니라,
해안선만은 실상 과분하다 할 만큼
조물주가 백의족에게 시혜하심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1

김교신 선생의 [조선지리소고]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 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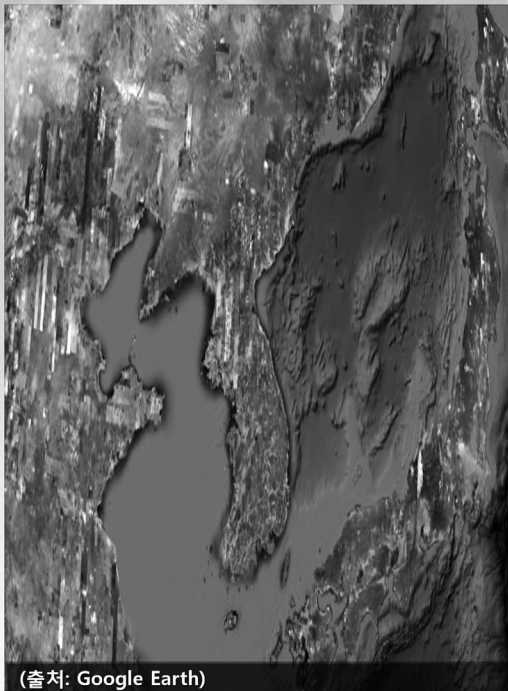
22

김교신 선생의 [조선지리소고]

“ . . . 한다면 이는 범에게
날개가 붙은 격이 될 것이다.
지구위에서는 이 이상의 이상적 강토를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 그것이
곧 조선 반도이다.”

23

김교신 선생의 [조선지리소고]



(출처: Google Earth)

“은둔하기는 불안한
곳이나 나아가 활약하
기는 이만한 데가 없다.”

24

**“동양의 온갖 고난도 이땅에 집중
되었거니와 동양에서 산출해야 할 바
모든 고귀한 사상, 동반구의 반만년의 총
량을 대용광로에 달이어낼 엑기스는 필연
코 이 반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리라.”**

25

서울경제

2013년 04월 12일 금요일
A38면 오피니언

창조국토론

로터리



박 앙 호

국토연구원장

우리 한반도의 특성을 논하면서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이며 심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또 “섬으로 구성된 예게 해를 보유한 그리스 반도와 길다란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의 장점만을 떼어다 연결하면 이는 밤에 날개가 붙은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륙과 해양의 각기 다른 강점이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김 선생은 “지구 위에서 그런 이상적 강토가 바로 우리 한반도”라고 주장했다. 동북아 심장부에 위치한 한반도가 천혜의 지정학적 행국을 띠고 있음을 통찰한 것이다.

김 선생의 결론은 이렇다. 과거에는 동양의 온갖 고난이 이 땅에 집중됐지만 미래에는 지구촌 동반구의 새로운 문명 엑기스를 필연코 한반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리라고 내다봤다.

우리 국토는 한반도가 지닌 최상의 지정학적 장점을 극대화해 인류문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토는 ‘창조국토’가 돼야 한다. 국민의 우수한 두뇌와 ‘할 수 있다’는 캔 두(can do)의 도전정신, 여기에 통합된 국민의지가 더해지면 능히 창조국토를 만들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인 ‘희망의 새시대’는 창조국토의 지향점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국정 4대 목표는 창조국토의 네 가지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부흥의 축을 위해 과학기술과 융합된 창조경제가 꽃을 필 수 있도록 창조산업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행복의 축을 위해 주거복지와 동시에 중수도사업 구도 속에서 도시와 농촌을 재생시켜 주민 삶의 질을 혁신하고 세종시 체제의 완성 등 국토의 균형발전도 가속해야 한다.

문화융성의 축을 위해 경주·부여 등 고도(古都)를 중심으로 찬란한 역사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국제문화관광도시로 도약시켜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한류문화가 전세계로 뿜어 나가야 한다.

평화통일기반의 축을 위해서는 남북한 접경 지역을 평화지대로 변화하는 등 한반도 웅비의 새로운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 이들 네 가지 축이 서로 융합된 힘을 발휘하는 창조국토공간에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해야 한다.

26

- 
- **충남 도민과 지자체와 대학, 기업,
중앙정부간 고도의 협업필수**
 - **국토전체의 발전과 지역현안의 조화**
 - **충남 도청 이전의 공간적 변혁을 뛰어넘어 세계를 향한
지역경제와 삶의 변혁의 새로운 계기로 승화,
성공적 결과를 성취해야 할 것임**

27

<참고자료>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2),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 국토교통부(2013), 2013년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실천계획
- 충청남도(2011), 도청이전백서
- 충청남도(2012),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 충청남도(2012), 충청남도 항만발전 종합계획
- 충청남도(2012), 충남 장기발전전략
- 충남발전연구원(2012.10), 행복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전략연구보고대회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2012.11), 행복한 삶: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제컨퍼런스)

28

- 박양호(2013.3-4), 서울경제 칼럼(로타리)게재
 - “창조경제형 도시재생모델”(2013.3.8)
 - ‘행복생활권’을 담는 新국토계획(2013.3.15)
 - “도시권중심의 新지역발전정책”(2013.3.22)
 - “ICT융합형 창조도시”(2013.4.5)
 - “창조국토론”(2013.4.12)
 - “창조경제와 공간정보산업”(2013.4.19)
 - “국민행복형 지역사회의 무지개”(2013.4.26)

29

대단히
감사합니다